



침체된 낙농현장에 청년의 열정과 희망을 더하다

경상남도 후계낙농인 모임 “희망낙농회”

국내 낙농가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원유 공급 과잉과 백색시유의 주요 소비층 감소로 인한 소비 부진, 원유가연동제와 관련 소비자들의 부정적 시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더욱 큰 문제는 낙농업을 이을 후계인력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농협축산경제가 전국 2,053농가와 49개 축협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낙농가의 48%가 후계자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중 대부분이 폐업 또는 매매·임대할 계획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월 20일 경남 창원외의 한국낙농육우협회 경남도지회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낙농업을 이끌어 나갈 경남지역 2세 낙농인들을 만났다. 이날 후계낙농인들은 아버지와 겪는 갈등부터 해결 방안, 현재 국내 낙농업이 처한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을 스스럼없이 이야기했다.



안 형 준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희망낙농회가 결성되고 이어온 길

경남지역에서 활동 중인 2세 낙농인들이 모임을 결성했다. 모임의 이름은 ‘희망낙농회(이하 희농회)’. ‘희농회’는 지난 2013년에 경남지역 7명의 후계낙농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3년이 지난 현재 희농회 인원은 20명까지 늘어났다.

“같은 지역에서 낙농업을 하는 친한 사람끼리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소주도 한 잔 하기 위해 만났습니다. 점점 인원이 늘어나며, 단순한 친목 모임에서 벗어나 함께 낙농에 대해 공부를 하고, 우유도 홍보하는 모임으로 변했습니다.”

희농회 회원인 공태문(37세)씨의 말이다. 공태문 씨에 따르면 희농회는 매달 한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다. 하루 두 번 착유와 농장 정비로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모임에 나와 서로 사는 이야기나 힘든 점 등을 나누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한다.

희농회는 타 모임과는 다른 점이 있다. 가입을 희망한다 해서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닌, 3번 이상 모임에 참석하고 자신과 모임의 성격이 일치한다면 비로소 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타 친목모임과는 달리 인원 늘리기에 급급하지 않고, 정말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게 된다는 것이다.

희농회는 친목 모임이지만, 서로 목장일도 도우며 정보교류와 우유 홍보 및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학(37세)씨는 “목장일이란 게 혼자서 하기 힘든 일이 많은데, 희농회 회원끼리 품앗이를 통해 일을 도우니 한결 수월하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세미나를 통해 번식부터 사양관리까지 배울 수 있어 목장 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희농회가 잘 유지돼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갈 수 있는 동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밝혔다.

부모 세대와 갈등, 해결방안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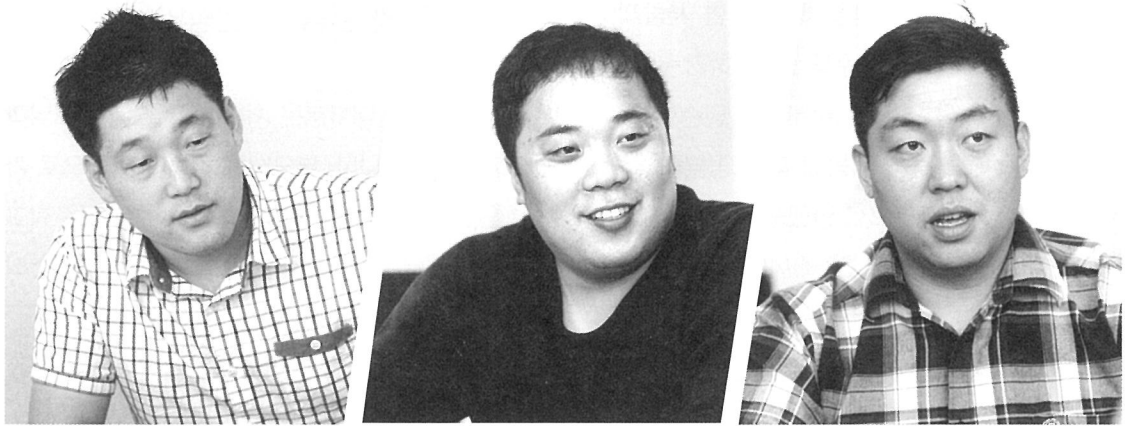
“낙농후계자 대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부모님과 마찰이 발생합니다. 부모님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안정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젊은 층은 학교나 기술센터 등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자신만의 사육을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김진균(33세)씨의 말이다. 그도 낙농업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부모님과 마찰이 많았다고 한다. 열정만 가진 초창기에는 축산학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도전을 했지만, 그때마다 부모님은 “네가 낙농에 대해 무엇을 하느냐”라는 대답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생활패턴도 문제가 됐다.

한창 친구들을 만나는 나이에 술이라도 한 잔 하면, 다음날 아침 착유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두고 “왜 나돌아 다니느냐”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김민성(30세) 씨도 부모님과 마찰을 겪었다. 젊은 층은 목장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낙농환경이 어렵다보니 시설투자를 꺼린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민성 씨는 “목장일이 노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젊은 층은 현대화 등의 시설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부모님 세대는 기존의 시설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시설투자와 관련 갈등이 상당부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동학 회원

김민성 회원

김진균 회원

김진균 씨와 김민성 씨는 낙농업에 뛰어든 초기에는 부모님과 의견 갈등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

대화와 실천을 통해 믿음이 쌓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입을 모아 부모 자식 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식들이 먼저 부모님의 방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 부모님도 자식을 믿고 일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균 씨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자식 입장에서 부모님이 해 왔던 사육 방식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자연스럽게 부모님들도 믿어 주신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김민성 씨도 “자식 입장에서 시설투자를 무조건 제시하지 말고, IT나 시설 관련 교육을 함께 다니면 부모님도 받아들여신다”면서 “시간을 두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후계자들 진입 꺼리게 하는 낙농업계와 언론

이날 모인 낙농후계자들은 낙농업계에 뛰어들었지만, 현재의 낙농업계를 보고 있으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든다. 유업체의 ‘밥그릇 챙기기’가 신규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 공급이 과잉돼 유업체와 낙농가 모두 ‘감축’을 통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얼마 전 일부 유업체가 수입산 분유로 환원유를 제조해 판매한 사건이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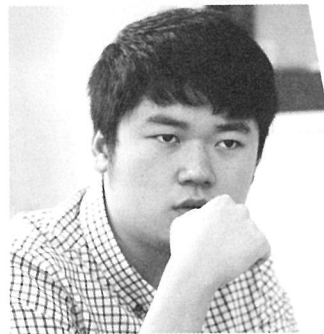
이와 관련 김민성 씨는 “유업체끼리 저가의 우유를 만들어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지면 후계낙농인들이 목장에 뛰어들기 꺼려진다”면서 “후계자들을 낙농현장으로 끌어들이려면 유업체들이 협력해 소비자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유가연동제와 관련 언론의 부정적인 기사로 인해 낙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가 팽배해져있는 것도 후계 인력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이와 관련 낙농2세대들은 낙농업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된 부분을 비판했다.

이동학 씨는 “생산비가 예전에 비해 2배 가량 올랐지만, 우유 가격은 10년 전과 비슷하다”면서 “과거에 비해 사료와 전기세도 오르고, 시설 투자에 들어간 비용도 있는데 이 부분을 소비자가 인정할 수 있도록 언론에도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문연수 회원



강주원 회원



공태문 회원

국내 낙농업의 문제와 나아갈 길은

후계낙농인들은 국내 낙농산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선 업계에 신규 인력이 확보돼야 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교육과 자금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 낙농가 중 후계자를 확보한 농가는 극히 일부고, 미래에는 그 소수가 국내 낙농업을 짊어져야 하는데 정부에서 낙농 인력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낙농후계자들은 낙농업에 뛰어드는 순간부터 시설투자, 쿼터매매 등으로 인한 빚을 지기 때문에 낙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 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문연수 씨는 “낙농육우협회에서 청년

분과위원회를 통해 후계낙농인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에서도 나서서 낙농 2세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공태문 씨는 물적 지원과 관련해 “후계낙농인들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목장을 물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작부터 적게는 5억원 많게는 8억원 가량의 빚을 안고 시작한다”면서 “후계자 입장에서는 빚에 대한 부담감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고, 이로 인해 낙농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이자 혹은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젊은 낙농인들이 낙농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더 나아가 우유 지급률을 지킬 수 있게 투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